

## 제 XIII 부

### 제 제 (諸題)

제38장에서는, 수량실사(数量実詞)의 사용에 대해서 생각한다.

명사와 수량실사는 시차동위격(時差同位格)에 있고, 이것을 계속해서 묘사하는 경우, 뒤에 묘사하는 것에 격사(格詞)를 붙이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제39장에서는, やりもらい、수급표현(受給表現)의 구조를 図示한다.

제40장에서는, 고교생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이 일본어구조전달문법(日本語構造伝達文法)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진술한다.

제41장에서는, 일본어구조전달문법이 생긴 경위에 대해 진술한다.

제42장에서는, 특수한 포함실체(包含實體)에 대해서 진술한다.

## 제38장

## 수량실사 (数量実詞)

## 38.1 수량실사란

『日本文法小辞典』의 VI장3 「수량표현」에서 정의되어 있는 「수량사(数量詞)」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태를 「수량실사」라고 부르기로 한다.

$$\begin{array}{c} \text{수량실사} = \text{수사(數詞)} + \text{조수사(助數詞)} \\ (3\text{人}) \qquad \qquad (3) \qquad \qquad (\text{人}) \end{array}$$

수량실사는

学生が3人来了。 (학생이 3명 왔다.)

와 같이, 「学生が(학생이)」와 같은 「명사 + 격사(格詞)」를 전후에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격(格)에 따라서는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

\*学生に3人会った。

와 같이 말할 수는 없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생성문법(生成文法) 측에서의 연구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구조전달문법」의 입장에서 다루어보고 싶다.

## 38.2 명사와 수량실사는 같은 격에 있다……時差同位格

学生が3人来了。 (학생이 세명 왔다.)

学生を3人呼んだ。 (학생을 세명 불렀다.)

学生3人に話した。 (학생 세명에게 이야기했다.)

学生3人と帰った。 (학생 세명과 돌아갔다.)

와 같은 각각의 문장의 「学生」도 「3人」도 실사이고, 구조구성에 있어서는 실체이다. 각각의 2개의 실체는 함께 완전히 동일의 격에 있다.

동일 격에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표충형식으로서는 부자연스러우나 격을 생각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는 문장으로 확인할 수 있다.

\*学生が3人が來た。 (학생이 세 명이 왔다.)

\*学生を3人を呼んだ。 (학생을 세 명을 불렀다.)

\*学生に3人に話した。 (학생에게 세 명에게 이야기 했다.)

\*学生と3人と帰った。 (학생과 세 명과 돌아갔다.)

「学生」도 「3人」도 지시물은 같고, 양자는 바꾸어 말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 단, 명사를 앞으로 하고, 뒤에서 수량실사로 환연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조를 나타내자면 図38-1, 2와 같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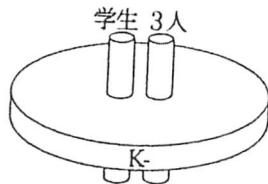


図38-1 学生が3人來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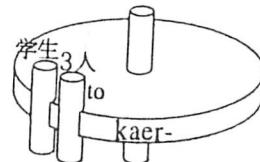


図38-2 学生3人と帰った

그림에서는, 알기 쉽게 하기 위해「学生」과「3人」의 실체를 따로따로 배치·표시되어 있지만, 실은 양자는 시차(時差)를 두고 동일의 격에 놓여진 성질의 것이다. 즉 「동위격(同位格)」이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図38-3, 4와 같이, 동일 실체의 상하에 실체명을 적어두는 표시법을 택하는 편이 좋을지도 모른다. 상하에서 시차(時差)를 표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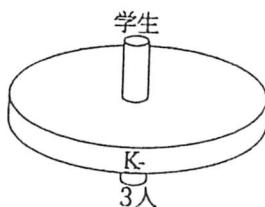


図38-3 学生が3人來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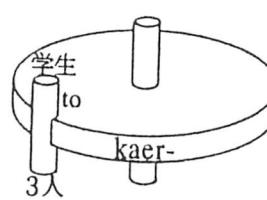


図38-4 学生3人と帰った

「学生」과「3人」의 어느쪽이든 한 쪽이 앞에 위치하고, 바로 뒤에 다른 하나가 같은 위치에 놓여진다. 이러한 형태로 사용되는 격을「시차동위격(時差同位格)」이라 부르기로 하고, 이와 같은 형태로 격위치(格位置)를 취하는 실체는「시차동위격실체(時差同位格実体)」라 부르기로 하자. 「学生」과「3人」은「시차동위격실체」이다.

### 38.3 가능한 묘사 패턴

学生が3人來た。 (학생이 세 명 왔다.)

라고는 말할 수 있으나,

学生と3人帰った。 (학생과 세 명 돌아갔다.)

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것은 왜일까. 명사와 수량실사는 어떻게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일까. 그 규칙을 명확히 해 보자.

주격과「を격」은 각각 동속성(動属性)에 있어서 중요한 격(格)으로, 다른 격과 다르고, 비슷한 특징을 갖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모든 격을「主・を격」(11.6쪽)과「일반격」과 같이 이분해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싶다.

우선「主・を격」에서 주격을 고르고,「일반격」에서「と격」을 골라 검토하고, 규칙을 유도하자.

시차에 있어서 사용되는 명사와 수량실사의 선후관계, 격사의 생략과 비생략의 관계로부터, 있을 수 있는 8개의 패턴을 설정하여,「수량실사사용표(数量実詞使用表)」(표38-1)를 만들어 보았다. (가능한 격표시형식에는 음영을 넣었다.)

数量実詞使用表

表38-1

主格								と格							
①		Ø		Ø		○	前	⑪		Ø		Ø		×	前
②	学生	Ø	3人	が	來た	○	i	⑫	学生	Ø	3人	と	帰った	○	i
③		が		Ø		○	iii	⑬		と		Ø		×	i
④		が		が		×	前	⑭		と		と		×	前
⑤		Ø		Ø		○	前	⑮		Ø		Ø		×	前
⑥	3人	Ø	学生	が	來た	○	i	⑯	3人	Ø	学生	と	帰った	×	ii
⑦		が		Ø		×	i	⑰		と		Ø		×	i
⑧		が		が		×	前	⑱		と		と		×	前

(可能な格詞には網掛けがしてある。)

우선, 격에 관한 대전제인 다음의 세 점을 확인해 두자. (표에서는 「前」이라고 표시)

- 「主・を」격은 격사(格詞)가 없어도 격은 명백하다. (11. 6①②) → ①⑤
- 「主・を」격 이외의 격에서는 격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 ⑪⑯
- 단, 동일의 격사를 2개 겹쳐서 사용할 수 없다. → ④⑧⑭⑯

즉,

「主・を」격에서는 격사가 없어도 되지만, 일반격에서는 격사를 하나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 것이 된다.

게다가, 이 표를 검토하는 것에 의해, 다음의 규칙을 이끌어낼 수 있다.

i 격사는 뒤의 것에 붙는다. → ②⑫⑥ / ⑬⑦⑰

ii 단, 수량실사의 격이 불명확해서는 안된다. → ⑯

iii 수량실사의 격이 불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앞의 명사에 붙여도 좋다. → ③

i .....시차동위격에 있는 두 실체를 묘사하는 데에, 두 실사를 먼저 모으고 나서 격사를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i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ii .....두 実詞의 환언은, 명사를 앞으로 하고, 뒤에서 수량실사로 환언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반대로 수량실사가 앞에 오는 경우는 수량실사와 명사의 일체감이 적어져서, 수량실사가 유리되어 버리기 쉽다. 이 때 수량실사의 격이 불명확해지기 쉽다. 불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수량실사가 앞으로 나와도 좋다. (「主・を격」의 경우  
가 이것에 들어맞고, 「に격」도 이런 경향이 있다.)

iii .....2실사를 먼저 모으고 나서 격사를 붙이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원칙대로 명사가 앞에  
오고, 게다가 수량실사의 격이 명료하게 유지된다고 한다면, 앞의 명사에 격사를  
붙이는 것은 가능하다. (「主・を격」의 경우가 이것에 해당한다.)

#### 38.4 を격・に격에서도 시험해 보자.

그러면, 위의 원칙은 다른 격, 예를들면 「を격」, 「に격」에서도 유효한지, 시험해보자.

우선 「を격」부터. 「を격」은 주격과 동등하게 취급할 수 있다.

りんご Ø 5個 Ø 買った。 (○) を격은 격사가 없어도 된다.

(사과 Ø 5개 Ø 샀다.)

りんご Ø 5個 を 買った。 (○) 뒤의 것에 격사가 붙어 있으므로 OK.

(사과 5개를 샀다.)

- りんごを 5個 買った。 (○) 앞의 것에 격사가 붙어 있으나, iii으로 OK.  
 (사과를 5개 샀다.)
- りんごを 5個を 買った。 (×) 격사가 중복되어 있으므로 불가.  
 (사과를 5개를 샀다.)
- 5個の りんごを 買った。 (○) 주격은 격사가 없어도 된다.  
 (5개의 사과를 샀다.)
- 5個の りんごを 買った。 (○) 뒤의 것에 격사가 붙어 있으므로 OK.  
 (5개의 사과를 샀다.)
- 5個を りんごの 買った。 (×) 앞의 것에 격사가 붙어 있으므로 불가.  
 (5개를 사과의 샀다.)
- 5個を りんごを 買った。 (×) 격사가 중복되어 있으므로 불가.  
 (5개를 사과를 샀다.)

다음으로 「に격」. 일반격이다.

- 友人 3人 話した。 (×) 일반격은 격사를 1개 사용하지 않으면 불가.  
 (친구 세명 이야기했다.)
- 友人 3人に 話した。 (○) 뒤의 것에 격사가 붙어 있으므로 OK.  
 (친구 세명에게 이야기했다.)
- 友人に 3人 話した。 (×) 앞의 것에 격사가 붙어 있으므로 불가.  
 (친구에게 세명 이야기했다.)
- 友人に 3人に 話した。 (×) 격사가 중복되어 있으므로 불가.  
 (친구에게 세명에게 이야기했다.)
- 3人 友人 話した。 (×) 일반격은 격사를 하나 사용하지 않으면 불가.  
 (세명 친구 이야기했다.)
- 3人 友人 話した。 (△) 격사는 뒤의 것에 붙어 있지만, 수량실사의  
 격이 불명확해지기 쉽다. (ii 참조)
- 3人に 友人 話した。 (×) 앞의 것에 격사가 붙어 있으므로 불가.  
 (세명에게 친구 이야기했다.)
- 3人に 友人に 話した。 (×) 격사가 중복되어 있으므로 불가.  
 (세명에게 친구에게 이야기했다.)

이상에 의해서 규칙이 「を격」, 「に격」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일반격에 있어서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확인은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 38.5 3人の学生(세 명의 학생)

수량실사에는, 위에서 본 「学生が3人来了。(학생이 세 명 왔다.)」「3人学生が来了。(세 명 학생이 왔다.)」등의 표현에 더하여, 「3人の学生が来了。(세 명의 학생이 왔다.)」라고 하는 「の」를 사용한 표현이 있다.

「の」는 동일구조상의 실체를 연결하여 묘사하는 것만의 기능을 가지며, 「の」 자신에는 의미가 없다. 의미는 구조 본연의 모습으로부터 나온다. (36. 1, 2)

38.2에서, 「学生」과 「3人」은 시차동위격 실체로, 시차는 어떤 것의 동일구조상에 있는

것이 명백하다. (図38-3, 4) 즉, 그 구조대로 양자를 「の」를 연결해도 좋은 것으로,  
学生の3人が来た。 학생의 세 명이 왔다.

3人の学生が来た。 세 명의 학생이 왔다.

는 당연히 가능한 표현이다라는 것이 된다.

또, 실체수식묘사(実体修飾描写) (4. 2. 2)를 이것에 짜맞추어 보면,

学生の 来た 3人 (は、日本語学科の学生で……)

학생의 온 세 명 (은, 일본어학과의 학생으로……)

3人の 来た 学生 (は、日本語学科の学生で……)

세 명의 온 학생 (은, 일본어학과의 학생으로……)

와 같이 묘사할 수도 있다.

단, 「の」로 묘사하는 구조에는 여러가지의 가능성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図 38-5, 6 과 같은 구조에서도 「学生の3人」 「3人の学生」의 표현이 가능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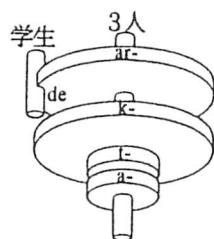


图38-5 学生の3人が来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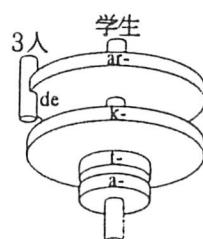


图38-6 3人の学生が来た

이 구조는 図38-3의 구조와는 다르다.

「の」와 함께 수량실사가 사용되고 있는 표현에서는, 의미는 비슷한 경우에도, 구조적으로는 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주고받음(やりもらい)

### 39.1 与える・受ける(주다·받다)

일본어의 「与える・受ける(주다·받다)」의 관계를 나타내는 7개의 동사는 일반적으로 図39-1과 같은 체계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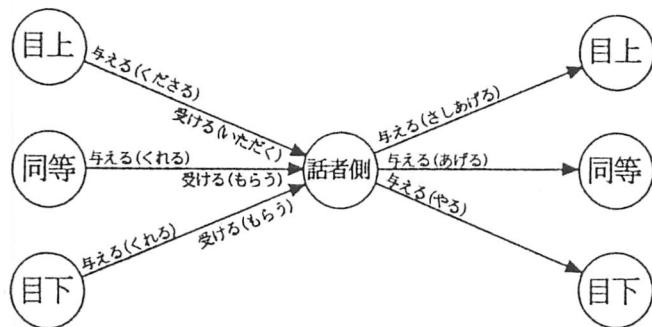


図39-1 与える・受ける

여기에서는, 7개의 동사는 다음과 같이 3종류로 분류되어 있다.

- ① 타자가 화자측에게 주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 「くださる(주시다)・くれる(주다)」
- ② 화자측이 타자로부터 받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 「いただく(받다)・もらう(받다)」
- ③ 화자측이 타자에게 주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 「さしあげる(드리다)・あげる(주다)・やる(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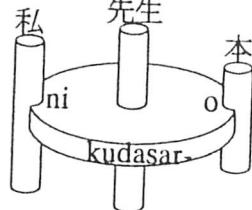
이 세 종류의 각각을 다음과 같이 부르기로 하자.

- ① 他者与え(타자 줌)… 「くださる・くれる」
- ② 話者側受け(화자측 받음)… 「いただく・もらう」
- ③ 話者側与え(화자측 줌)… 「さしあげる・あげる・や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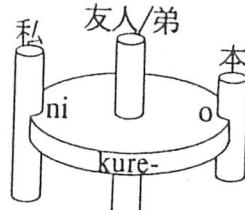
(일본어에는 「他者受け(타자 받음)」이 없다.

이것들 각각의 동사에 관계되는 구조를 간단히 표시해 두자.

### 39.2 「他者与え(타자 줌)」의 구조 「くださる・くれ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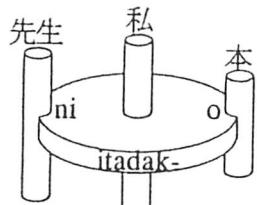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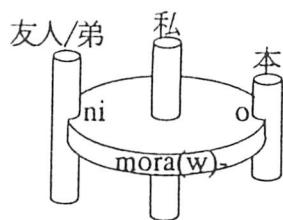


先生が私に本をくださる  
図39-2 目上がくださ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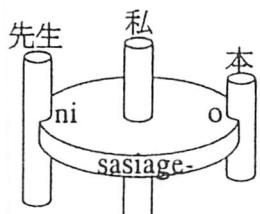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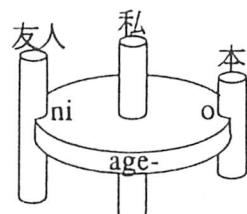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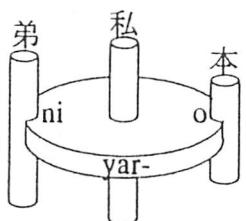
友人/弟が私に本をくれる  
図39-3 同等・目下がくれる

## 39.3 「話者側受け(화자측 받음)」의 구조 「いただく・もらう」

私が先生に本をいただく  
图39-4 目上にいただく私が友人/弟から本をもらう  
图39-5 同等・目下にもらう

「話者側受け(화자측 받음)」은 「他者与え(타자 줌)」의 다른 표현이지만, 「他者与え(타자 줌)」에 비해, 화자측의 바람(願望)의 존재가 뉘앙스에 있는 경우가 많다. 화자측이 부탁해서 타자로부터 받는다라는 뉘앙스이다. (격사는 kara여도 된다.)

## 39.4 「話者側与え(화자측 줌)」의 구조 「さしあげる・あげる・やる」

私が先生に本をさしあげる  
图39-6 目上にさしあげる私が友人に本をあげる  
图39-7 同等にあげる私が弟に本をやる  
图39-8 目下にやる

## 39.5 「～てくれる」・「～てもらう」・「～てあげる」의 구조

어떤 행위를 은혜의 수수(授受)로서 표현하는 경우의 구조도 예시해 두자.

## ① 他者与えの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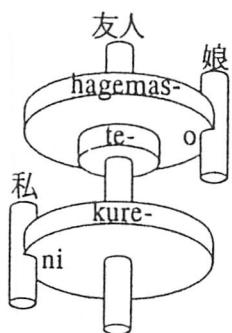


图39-9 友人が娘を励ましてくれる

## ② 話者側受けの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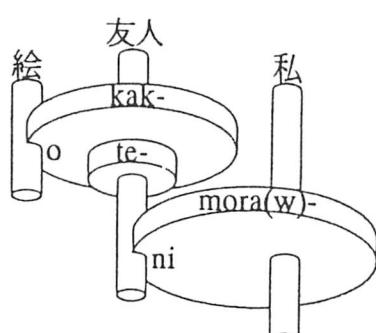


图39-10 友人に絵を描いてもらう

③ 話者側与えの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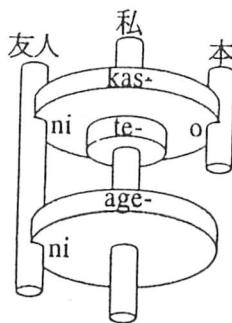


図39-11 友人に本を貸してあげる

### 39.6 「くださる」의 내부구조

他者与え(타자 줌)의 「くださる」는 39.2에서는 한 개의 동속성(動属性)으로서 구조를 생각했다. 그러나, 「くださる」는

kudas-ar-

와 같이 형태소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조는 보다 정확하는 図39-12와 같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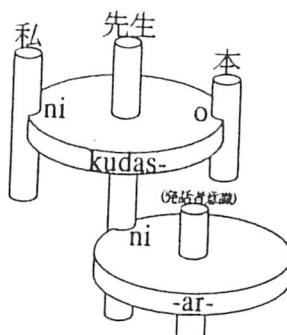


図39-12 くださる

kudasa-ar-의 kudas-는 『岩波古語辞典』에

손위사람으로부터 손아래사람에게 물건이나 말을 전함.  
(目上から目下へ物や言葉を渡す。)

이라고 나와 있고, 이미 「与える(주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고어의 준경을 나타내는 수동태 -ar-의 구조(12.11)가 더해졌다.

이 kudas-ar-의 형식이 나타난 것은 헤이안(平安) 말기 경이지만, 처음에는 한 단어라는 의식은 희박했다고 한다. (『角川新版 古語辞典』)

◎ kudar-라고 하는 동사가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kudas-의 부분은 더욱 더 분해가능하여, kud-as-

와 같이 kud-라고 하는 형태소를 추출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kud-라고 하는 형태소의 존재는 현재로서 확인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기까지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금후의 문제이다. (「あげる」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ag-e- : ag-ar-)

### 39.7 「させていただく」「させてください」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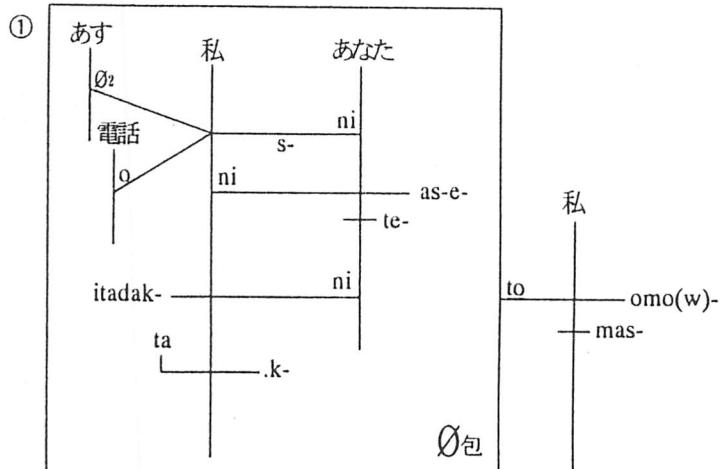
① あす、電話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내일, 전화드리고 싶습니다.

② この仕事は私にやらせてくださ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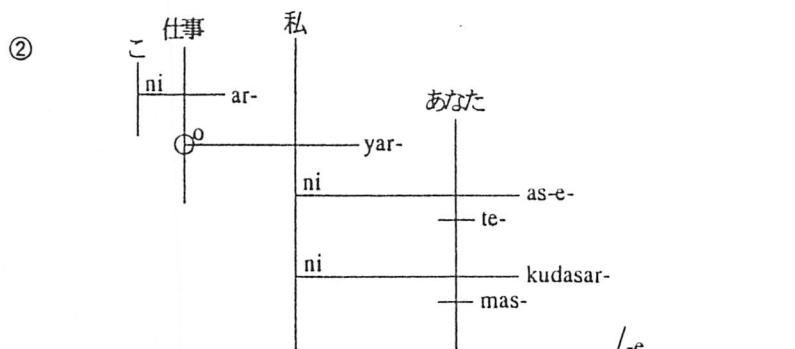
이 일은 저에게 시켜 주십시오.

이 두 문장의 구조를 간략표시로 나타내보자.



Asu- $\emptyset_2$  denwa-o s-as-e- $\emptyset$ =te- $\emptyset$ =itadak-i=ta.k-i=to omo-i=mas-u  
12.5 1) 21.2

図39-13 あす、電話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Ko-no sigoto- $\emptyset_0$ -wa watakusi-ni yar-as-e- $\emptyset$ =te- $\emptyset$ =kudasari-i=mas-e  
37.7 → kudasa -i=  $\emptyset$  - $\emptyset$

図39-14 この仕事は私がやらせてください

## 제40장

# 고교생들에게

### 40.1 학교문법

학교문법은 히라가나를 사용한 문법, 즉 박자(拍)을 단위로 한 문법입니다. 그 때문에 음소(音素) 차원에서의 형태소 분석이 불가능하여, 학생들은 불필요한 성가신 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자(拍) 단위에서는 형태소분석 등이 불가능합니다. 왜 일본인은 그것을 등한시해 온 걸까요.

학교문법 특유의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암기하는 내용은, 내용의 핵심을 찌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암기하여 기쁨이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암기인가. 학생들은 의문을 느끼면서 암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40.2 21세기의 문법은 단순명쾌?

「일본의 상식, 세계의 비상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의 개성인 것을 「비상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경우도 많지 않은가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어문법에 대해서 말하자면, 싫어도 이 말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내에서는 상식이 되어 있는 국어문법이 세계의 비상식이 되어 있는 것은, 문법을 생각하는 데에 「가나문자(かな文字)」를 사용해 온 데에 원인이 있습니다. 「가나문자」는, 예를 들면 「ま」가 1문자로 ㅁ과 a의 두 음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많은 경우 2음을 합쳐서 하나의 단위로서 묶여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어의 문법은 본래, 하나하나의 음을 단위로 하지 않으면 바르게 파악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어와 비슷한 언어인 한국어나 몽고어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면, 곧 깨달을 것입니다.

일본어의 문법은, 「가나문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의 음소「音素」를 나타내는 「로마자」를 사용해서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저 자신은 「일본어구조전달문법」이라는, 새로운 시점에서의 문법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 새로운 문법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기로 합니다.

지금 여기에

① 私は先輩に無理に酒を飲まされた。(선배가 나에게 술을 얹지로 권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의 「のまされ」의 부분을 분석해 봅시다.

로마자로 분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② nom-as-ar-e-  
nom-은 동사, -as-는 사역태사, -ar-은 수동태사, -e는 허용태사, 매우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배운대로, 히라가나를 단위로 해서 분석하면,

## ③ のま/さ/れ

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코멘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のま……동사 「のむ」의 미연형

さ……사역의 조동사 「せる」의 미연형

れ……수동의 조동사 「れる」의 연용형

더욱이, 왜 「미연형」, 「연용형」인가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복잡성, 중학생의 골치를 썩게하고, 문법을 싫어하게 만드는 이 복잡한 것은 왜 생긴 것일까요. 본래는 단순 명쾌한 것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 걸까요.

가나문자에 의한 분석을 로마자에 의한 분석과 비교하여 봅시다.

## のま/さ/れ

nom-a/s-a/r-e- (nom-as-ar-e-)

그러면, 가나문자에 의한 분석에서는, 잘라서는 안 되는 부분에서 자르고 있는 것, 잘라야 할 부분에서는 자르지 않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본래 단순한 것이, 취급방법이 잘못 됨으로 인해, 복잡한 것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浩君」と「由佳ちゃん」と「雄二君」が來た。(浩君과 由佳과 雄二군이 왔다.)

라고 말하면 좋을 것을, 일부러 복잡하게 하여,

「浩君と、由佳ちゃんの左半分の体」と「由佳ちゃんの右半分の体と、雄二君の左半分の体」と「雄二君の右半分の体」が來た。

(「浩君과 由佳의 좌반신의 몸」과 「由佳의 우반신의 몸과 雄二의 좌반신의 몸」과 「雄二의 우반신의 몸」이 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것을 설명하는 데에

「由佳ちゃんの左半分の体(未然形)が來たのは、浩君(動詞)が由佳ちゃんの右半分の体(使役)を必要としたから」で、

「由佳ちゃんの右半分の体が來るとき雄二君の右半分の体(受動)も連れて來たかったので、雄二君の左半分の体(未然形)もついて來ることになった」

(「由佳의 좌반신의 몸(미연형)이 온 것은, 浩(동사)가 由佳의 우반신의 몸(사역)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고,

「由佳의 우반신의 몸이 올 때 雄二의 우반신의 몸(수동)도 데리고 오고 싶었기 때문에, 雄二의 좌반신의 몸(미연형)도 불어오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일부러 복잡하고 구태의연한 문법이 학교에서 계속 가르쳐지는 것일까요. 이대로는 중학생에게 일본어의 언어로서의 재미를 가르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곧 21세기입니다. 21세기에는, 세계의 비상식·우리나라 문법, 이것이 극복될까요. 본래의 단순명쾌한 언어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 가능하게 될까요. 이것은 우리들의 노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괜한 자부일까요.

## 40.3 분석의 타당성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그러면, nom-as-ar-e-라고 하는 분석방법은 정말로 타당한 것일까요.

이 분석법이 타당한 것인지는 어떻게 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말을 하나하나의 판단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그렇다면, 분석 법이 타당한지 아닌지는, 그 분석이 판단내용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판단이 어떤 것인가를, 모델을 사용해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모델은, 화학에서 잘 알고 있는 문자구조모델같이, 어떤 사물이 가지는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나타내 줍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려고 하는 대상을 적절한 집합속에 위치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고교수학에서는 집합을 공부합니다만, 모델만들기는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は偶数である(2는 짝수이다.)」라는 것은 하나의 판단이지만, 이것은 「2」가 「偶数である」인 것의 집합속에 들어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벤다이어그램으로 図40-1과 같이 나타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면 「犬は動物である(개는 동물이다)」라고 하는 판단은 図40-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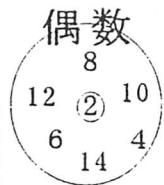


図40-1 2は偶数である



図40-2 犬は動物である

「犬」에 대한 판단은, 「犬は動物である(개는 동물이다)」뿐만 아니라, 「犬は走る(개는 달린다)」「犬は吠える(개는 짖는다)」와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복수(複数)의 판단을 일거로 도시하기 위해서 図40-3과 같이 모델을 입체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図40-4와 같이 간략하게 표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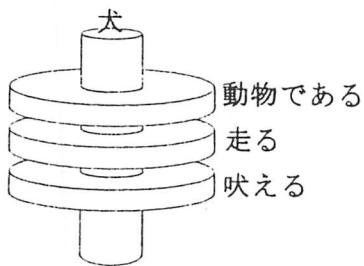


図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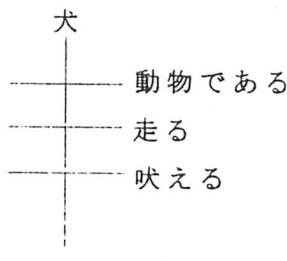


図40-4

그런데, 「動物である(동물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더욱이 「動物/で/ある」라는 식으로 세 개의 요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図40-5와 같이 표시하기로 합니다. 図40-6은 그것을 간략표시한 것입니다. 「で」는 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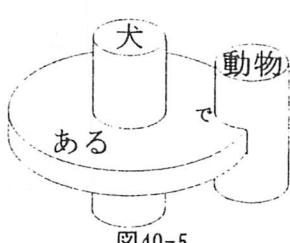


図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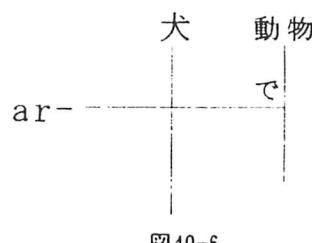


図40-6

그리면, 도중의 일체의 설명을 생략하고, 단숨에 「私は先輩に無理に酒をのまされ(た) (나는 선배에게 억지로 술을 강권당했다)」의 도시로 진행합니다. 図40-7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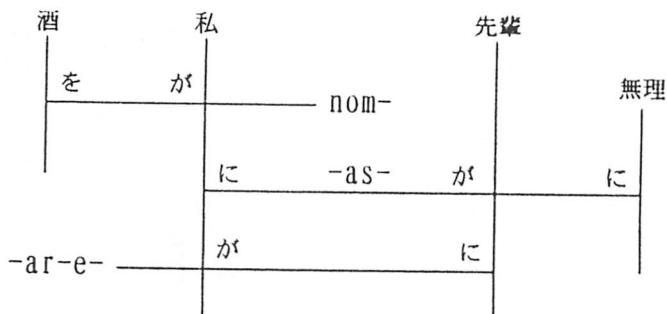


図40-7 私は先輩に無理に酒をのまされ(た)

갑자기 이런 식으로 구조도를 그린다해도 헤맬지만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구조모델은 다음과 같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私ーが(내-가)」「酒ーを(술-을)」「nom-(마신다)」라는 행위를 하고, 이 행위를
- 「先輩ーが(선배-가)」「私ーに(나-에게)」「無理ーに(억지-로)」「-as-(하게하다)」(사역)하고 있어, 이 사역을
- 「私ーが」「先輩ーに(선배-에게)」「-ar-e-(당하다)」(수동)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nom-as-ar-e-라고 하는 분석의 타당성이, 이 구조모델에서 분명하게 되 있지 않습니까. 분석에 의해 추출된 각각의 요소가, 판단내용을 나타내는 구조의 각 요소에 하나씩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ar-e-에 대한 설명은 12.5.2)를 참조해 주세요.)

한편, 학교에서 배운 대로 「のま/さ/れ」라고 분석한 경우의 각요소 「のま」「さ」「れ」에 대응하는 것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모델을 사용하면, 다른 이점도 있습니다.

④ 私は先輩に酒をnom-as-ar-e- (나는 선배에게 술을 강권당했다.)  
라는 형식에 출현하는 「に」가, 어떤 「に」인가 하는 것도, 구조모델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⑤ 先輩が私に無理に酒をnom-as-(u.) (선배가 나에게 술을 억지로 권했다.)  
와 구조묘사할 때의 2개의 「に」와 다르다는 것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부터, nom-as-ar-e-라고 하는 분석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40.4 전달

그리면, 여기서 「전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로 표현합니다만, 말로 표현하기 전에(혹은 동시에), 위와 같은 판단의 구조를 머리 속에 구축하고 있을 것입니다.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판단구조를 상대의 머리 속에 재현시키기 위해 행하는 행위입니다.

그리므로, 가장 효율이 높은 전달은, 그 구조 그 자체를 그냥 그대로 상대의 머리 속에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러한 것을 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을 사용하여 그 구조의 모양을 「묘사」하여, 말의 형태로

상대에게 전합니다.

상대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단서로, 같은 판단의 구조를 자신의 머리 속에 재현시켜, 전달내용을 이해합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외국어의 경우는 아무리 그 말을 들어도 구조를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달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조전달문법」이라는 이름 속의 「전달」이라는 말을 이러한 생각의 토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40.5 허용태(許容態)

그러면 마지막으로, 「허용태사(許容態詞)」 (-e)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봅시다. 「허용태사」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에서 발견됩니다.

⑥ 彼には英語がhanas-e-ru. (그는 영어를 말할 수 있다.)

⑦ 富士山がmi-e-ru. (후지산이 보인다.)

이 두 개의 판단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図40-8, 9와 같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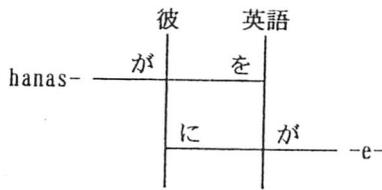


図40-8 彼が英語が話せ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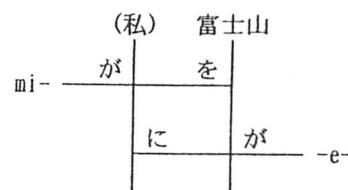


図40-9 富士山が見える

図40-8에서는 「彼一が (그-가)」「英語一を (영어-를)」「話す (말하다)」라는 것을 「英語一が (영어-가)」「彼一に (그-에게)」「許容 (-e-)」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話すことができる (말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図40-9에서는 「私一が (나-가)」「富士山一を (후지산-을)」「見る (보다)」라는 것을 「富士山一が (후지산-이)」「私一に (나-에게)」「許容 (-e-)」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見ることができる (볼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어떤 경우도, 동작의 대상이 되어 있는 말 (「英語」「富士山」)이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e-가 있기 때문에, 「英語」도 「富士山」도 -e-에 대해 주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서술해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만약 흥미를 가지게 될 것 같다면, 부디 일본어문법의 해명에 참가해 주십시오.

## 제41장

**「일본어구조전달문법」의 탄생**

왜 이런한 문법이 탄생한 것인가. 그 경위에 대해서 진술해 두자. 이 문법은 필자의 개인적인 체험과, 그것을 통한 사고에서 생겨난 것으로, 필자의 체험을 중심으로 진술하게 된다.

**41.1 학부에서……몽고어라고 하는 형태로 일본어를 배우다.**

① 동경외국어대학의 몽고어학과에 입학하여, 몽고어학자인 小沢重男 선생님의 강의를 받게 되었다. 몽고이라는 것은 외국어인데도, 문법이 일본어와 매우 닮아 있다. 우선 이것에 놀랐다. 나에게 있어 그 때까지 외국이라고 하면 영어와 러시아어여서, 외국이라고 하면 SVO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② 小沢선생님의 강의에서는, 몽고어의 문법이 언어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되어 있어, 내가 그때까지 배워온 국어나 영어의 실용문법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언어를 음소단위로 구성요소로 분해하고, 그 요소 각각을 세밀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방법에 접하여, 문법이 닮아 있는 것만으로, 자연히 국어문법의 취급방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생각하던 중에, 국어의 문법은 가나(仮名)를 단위로 하는 문법, 즉 박자(拍)을 단위로 하는 문법임을 알게 되었다. 매우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때까지는 마음에도 두지 않았었다. 그때까지 받았던 국어교육 속에 있는 한은, 아마도 이것을 눈치채지 못 했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가나를 사용하여 문법을 분석하는, 즉 박자(拍)을 단위로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고,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면, 박자를 단위로 하는 과학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으나,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과학적 근거는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기는 커녕, 박자율 단위로 하는 것이 반대로 수갑과 족쇄가 되어, 일본어문법의 언어학적인 인식을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박자를 단위로 하고 있는 것은, 문법연구가 단순히 가나표기의 편리성에 잡혀버린 결과일 뿐이다라고 나는 결론짓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어가 개음절(開音節)의 언어로, 그 음절(拍)을 나타내는 태에 가나문자가 편리하다는 사실이 있으므로, 그것은 어느정도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왜 일본인은 이것을 타파할 수 없었던 것일까. 긴, 정말 긴 시간, 일본인은 집단착오에 빠져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다. 분명히, 경종을 울리는 사람도 있기는 있었지만, 납득할 만한 이론장치를 가지지 못했다. 나 자신, 머리 속의 박자단위의 국어문법을 깨부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③ 小沢선생님의 어느 수업에서 하나의 과제가 주어졌다. 분명히, 몽고어의 수동태를 나타내는 형식의 의미적 확대를 논하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 과제에,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어떤 모델에 준해서 답변하고 싶었다. 선생님은 거기까지는 요구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실현하고 싶었다. 단지 그 당시는 능력부족으로, 간단한 도시에 그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그 후에도 나로부터 멀나지

않았다.

④ 小沢선생님의 어느 수업에서 생성문법(生成文法)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한 개의 표충구조에 몇 개의 심충구조가 가능하다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강의를 받은 것도 내게 큰 의미가 있었다.

이상, 학부에서는 몽고어를 공부하면서, 이제와서 생각해 보면, 실은 일본어를 다른 형태로 공부하고 있었다.

더구나, 세미나는 宮川透선생님의 철학연구 세미나에 들어가, 거기에서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의 초보를 배웠다. 졸업논문은 루소의 종교사상에 관한 것이었다. (칸트가 산보의 시간을 어긋나게 할 정도로 열중하여 읽었다고 하는 루소의 「에밀」 중 「사보아의 조임사제(助任司祭)의 신앙고백」에 대해서였다. 루소가 문학에서 이야기한 것을 칸트가 철학에서 이야기했다.)

#### 41.2 대학원에서……일본이문법에의 출발

그대로 대학원에 진학했다. 대학원에 진학한 것은, 몽고어의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서, 몽고 문학의 연구를 하기 위해서였다.

대학원에 가서 梅田博之선생님의 조선어수업을 들었다. 공부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선생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다.

- 몽고어의 Hb(ニ)라고 하는 어미는 일본어의 「は」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선어의 은/는이라고 하는 어미도 「は」와 비슷하군요.
- 네, 매우 비슷합니다.

梅田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반대로 질문을 하셨다.

- 조선어의 은/는은 주격 이외에 여러가지의 격에 붙어서, 격조사를 지워버리는 일도 있지만, 몽고어의 Hb(ニ)도 여러 가지 격에 붙습니까?

나는 당시 그러한 시점에서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의 이러한 질문에 즉시 답할 수가 없었다. 곧 조사해보니, 확실히 몽고어의 Hb(ニ)는 여러 격에 붙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 보다도, 문법서에서 읽었음직한 것임에도, 그러한 시점에서 주의해서 본 적이 없는 자신을 깨달았다.

그러면, 티벳어의 ni(nin이라는 형태도 있다.)라고 하는 조사는 어떨까하고, 티벳어-영어 사전을 찾아보니, 티벳어의 ni도 여러 가지 격에 붙어 주제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다. (티벳어는 北村甫선생님께 기초를 배웠다.)

그렇다면, 일본어의 「は」도 여러 가지의 격에 붙지 않을까하는 당연하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에 생각이 미쳤다. …라는 것은, 주격에도 붙는 것이다. 즉, 「私は学生だ。(나는 학생이다.)」라는 것은 실은 「私がは学生なのだ。(내가는 학생이다.)」이다라는 것에 생각이 미쳤다.

그러나, 「私がは」 따위의 형식은 있을 수 없다. 「私は」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私は」에서는 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격의 존재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일까. 언어형식에서는 나타낼 수 없다. 무언가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

그 다른 방법을 찾던 중에, 가정교사로 가르치고 있던 수학의 집합의 사고가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집합 그림의 의미를 생각하던 중에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 그림을 입체화하면 언어모델이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해보니까, 사역태(使役態) · 수동태를 비롯하여, 확실히 여러가지 것이 설명가능 할 것 같았다.

더욱이 그 입체모델에 대해서 생각해 가니까, 그것은 인간의 사고 그 자체의 모델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 입체모델은, 언어라고 하는 형태로 현상되기 직전의, 인간의 사고의 모습 그 자체를 나타내는 「사고의 형식」의 모델인 것처럼 보여져 왔다.

여기에서부터 나의 일본어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었다. 대학원 1학년 반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다. 한번 목표로 한 몽고어문학에의 길을 여기서 크게 수정한 셈이다. 석사논문은 「일본어구조문법」이란 제목이 되었다.

그후, 학원강사 등을 하면서, 연구를 계속했다.

#### 41.3 일본어 교사가 되다.

일단 일본어연구를 계속하다 보니, 나는 내 자신이 일본어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자각이 깊어졌다. 일본어를 정면에서 맞닥뜨리기 위해서는 일본어 교사가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고 생각해, 그 길을 택하기로 하고, 국립국어연구소에서 하고 있던 일본어 교육 장기 전문연수의 제2기생(1978년 4월 ~ 1979년 2월)이 되었다. 이 시기에 국어학회, 일본言語学会 등에서 연구의 일부를 발표했다.

연수수료 후, 국제교류기금으로부터 몽고에 일본어 교사로서 파견되어(11개월), 다음에 페키스탄(4년 4개월), 스페인(3년 3개월)을 계획해, 9년 가까이 외국에서 일본어교사로서 보냈다. 일본어교사가 되고보니, 그것은 또 그 나름의 묘미가 있는 직업으로, 외국을 돌아다니는 동안 완전히 일본어교사가 되어버렸다. 파견과 파견 사이에는 일본에 체재했던 기간도 있어, 10년 남짓은 하나의 별개의 인생을 충분히 살았다는 실감이 든다. 그러나, 그동안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초조함과도 같은 생각은 언제나 있었다.

#### 41.4 교린대학에서 연구재개

1990년 4월, 교린대학 외국어학부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수년 지나자 대학교원으로서의 일도 익숙해져서 연구의 여유가 생겼다. 1995년 3월 대학의 기요(紀要)에 「일본어구조전달문법 · 서론」이라고 제목을 붙여 발표할 수 있어, 그 후 매년 계속해서 발표해 왔다.

그리고 매우 다행스럽게도, 1998년에는 대학으로부터 1년간의 연구휴가를 받아, 고려대학 교(한국)의 언어정보연구소에서 연구생활을 보낼 수 있었다. 본서는 그 기회에 정리한 것이 토대가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경위로 「일본어구조전달문법」이 탄생했고, 현재의 형태가 된 것이다.

#### 41.5 문법의 명칭

그럼, 다음으로 이 문법의 명칭에 대해 논하자.

촘스키는 출발점에 있어서 심층레벨을 설정하는 것에 의해 큰 성과를 얻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그 획기적인 심층레벨에 있어서 조차, 나에게는 거기에 존재하는 것은 역시 「文의 형식」인 것으로 보였다. 표층의 文을 심층의 「文」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였다.

심층도 「文」이라면, 더욱이 그 심층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 「文」의 성립을 보증하기 위해 확고한 「무언가」가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무언가」가 없다면 심층의 문조차, 취급방법에 자의성(恣意性)을 면할 수 없다는 불안이 있다. 그렇게 나는 생각했다.

현재 생성문법에서는 심층구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당연한 결과인 것

같다. 본래 심층구조는 없었던 것이다.

나의 경우는, 심층에는 「文」이 아닌 「사고의 형식」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이 큰 상이점이었다. 「사고의 형식」은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형식으로, 본능에 속하는 것이다. 경험에 의해 훈련되거나 하지 않는다. 훈련 없는 확실한 형식이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 구조는 마땅히 「심층구조」라고 이름지어야 할 것이다.

「文」은 한 개의 사고의 형식으로부터 몇 종류의 교환법(묘사법)에 의해 다양하게 생성되는 「사고의 그림자」로, 여러 가지로 훈련된다. 「文」이 심층구조일 리가 없다. 심층구조에는 훈련 없는 「사고의 형식」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심층을 다루는데 자의성을 배제할 수가 있다.

여하튼, 결과적으로 내 생각에는, 초기의 생성변형문법에 담은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의 사항의 취급은 춤스키적 발상에 기초한 것과는 꽤 다를 것이다. 그래서, 이 문법의 명칭을 지금에 있어서, 변형이라든가 생성이라든가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구조(묘사)전달문법」이라 하기로 했다. 이 명칭은 내용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도 느꼈다.

#### 41.6 입체모델

화학의 분자모형을 연상시키는 입체모델로 일본어의 구조를 나타낼 수 있게 되어, 그 구조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조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응당 도달해야 할 단계일지도 모른다.

일본어구조전달문법은 판단과 언어를 구성하는 제요소의 구조나 성질을 해명하고, 그것들 간의 관련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물질의 구조나 성질을 해명하고, 물질 상호간의 반응을 연구하는 화학에 어느정도 통하는 면이 있으므로, 연구의 방법에 담은 부분이 나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른다.

금후에는, 화학에서의 물질의 취급법도 참고하여, 판단과 언어에의 이해를 두터이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 제42장

## 특수한 포함실체

## 42.1 편의상의 포함실체 「ながら」

「～ながら」의 기원은 『일본문법대사전』 등에 의하면, 「～のから」이다. 「～のから」 중의 「から(柄)」는 본래 「族」의 의미로, 이것이 「소성(素性)/자연스런 결과(自然のなりゆき)/때문(ため)/때문(ゆえ)/형상·품격의 정도(形状・品格の程度)」으로 의미를 확장했다. (『岩波古語辞典』)

예를들면, 「神(かむ)ながら」는, 구조는 「神のから」로, 의미는 「神の性質として。神であるままに(신의 성질로서, 신 그대로)」이다. 즉, 신에게는 「から(격)」이 있어, 그 「から」에 있어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瑞穂の國を神ながら太敷きまして (万199)

(일본을 신으로서 다스리시고)

의 밑줄 그은 부분의 구조는 図42-1과 같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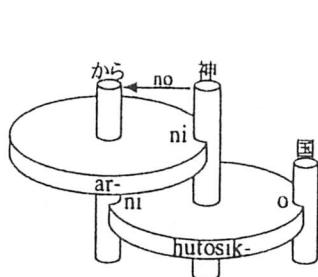


図42-1 國を神ながら太敷く  
(神であるまま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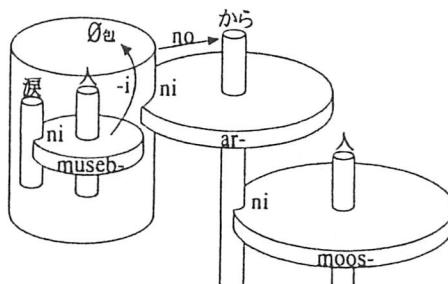


図42-2 涙にむせびながら申す  
(涙にむせぶままに)

또, 「ながら」가 용언의 연용형에 붙는 경우는, 구조상에서는 제로의 포함실체가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涙にむせびながら申やう (宇治拾遺物語11)

(목메어 울면서 말씀드리다.)

의 밑줄 그은 부분의 구조는 図42-2와 같이 된다. 여기에서는 「涙にむせぶ(목메어 울다)」가 「から(なりゆき)(되어가는 형편(과정), 그 결과)」를 가지고, 그 「から」에 있어서 「申す(말씀드리다)」가 행해진다.

현대어에서도 같은 식으로 「お茶を飲みながら話をする。(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다.)」와 같이 사용되고 있고, 그 구조는 図42-3과 같이 되어 있다. 「お茶を飲む行為になりゆきがあり、そのなりゆきにおいて話をする。(차를 마시는 행위에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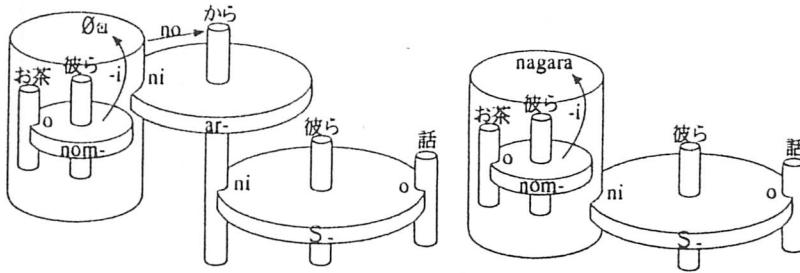


図42-3 お茶を飲みながら話をする

図42-4 便宜的包含実体「ながら」

그러나, 구조는 확실히 이렇다 하더라도, 이것에서는 하나하나 어원에 거슬러 올라가는 격이 되므로 현대인의 의식으로 본다면 번거롭다. 그래서, 편의상 図42-4와 같이, 「ながら」라고 하는 포함실체를 설정하기로 하자. 이것이라면 꽤 다루기 쉬워진다. 단, 이것은 어디까지나 편의상의 포함실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 실체 「から」, 포함실체 「nagara」의 격은 「に」격으로 하고 있으나, 감각적으로는 「 $\theta_2$ 」격이 받아들이기 쉬울지도 모른다.

「ながら」는 부정이 뒤에 오는 용법도 있어, 그 경우는 역접의 관계를 초래한다. 그 구조도 나타내 두자. 예로서 「それを知っていながら教えない。(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가르쳐 주지 않다.)」를 간략표시로서 図42-5에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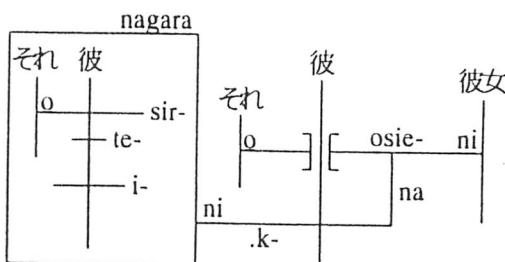


図42-5 知っていながら教えない

## 42.2 무격(無格)의 제로포함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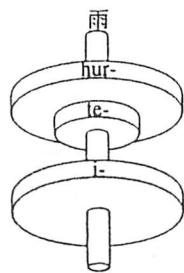
본 문법에서는 구조 중에 존재하는 실체는 반드시 무언가의 격으로 있어, 무격의 실체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36.2) 그런데

雨が降ってはいる。(비가 내리고는 있다.)

雨は降ってはいない。(비는 내리고 있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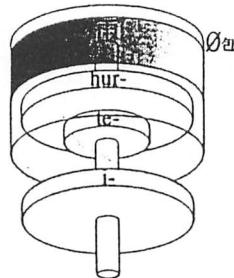
에 있어서 사용되고 있는 제로포함실체는 무격으로 구조 중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로포함실체의 특수한 용법이라고 단정짓지 않으면 안된다. ……소위 동사의 テ形에 「は」를 비롯하여 상대화묘사(相對化描寫「も・こそ・さえ」등)를 세울 때 이 용법이 된다.

図42-6은 「雨が降っている(비가 내리고 있다)」의 구조지만, 이것에 「は」를 더하여 「雨が降ってはいる(비가 내리고는 있다)」라고 하면 図42-7에 나타내는 구조가 된다.



hur-i=te-θ=i-ru

图42-6 雨が降っている



hur-i=te-θ=θ包-無格-wa=i-ru

图42-7 雨が降ってはいる

여기에서는 「は」를 상대화묘사사(相對化描寫詞)의 대표로서 다루어, 「も・こそ・さえ」 등은 이것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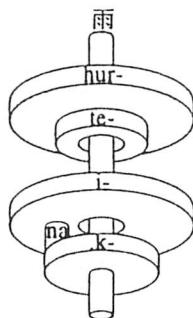
图42-6의  $hur-i=te-$  의 부분을 제로포합실체에 편입하면, 그 부분을 실체로서 기능하게 할 수 있게 되어, 「は」등에 의한 상대화묘사가 가능하게 된다. (=te- 가 제로포합실체를 수식할 수 있는 것은 포합실체수식묘사사 -(i) (9. 2)에 의해서이다.)

통상, 어떤 구조를 실체화하는(포합실체 속에 편입하는)것은 그 구조를 다른 구조 속에 넣기 위함으로(6. 4), 그 구조가 편입된 포합실체는 다른 구조 속에, 무언가의 격에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지금의 경우, 실체화하는 것은 그 구조를 다른 구조 속에 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は」에 의한 상대화묘사를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 뿐이기 때문에,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형성되는 포합실체가 다른 구조속에서 무언가의 속성에 관계된다고 하는 결과를 낳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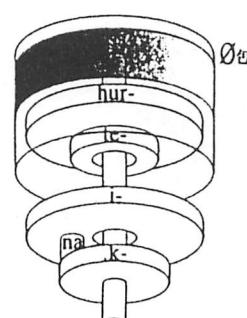
즉, 이 포합실체는 격에서 존재하지 않고, 무격의 실체가 된다. 이것은 图42-7에서 포합실체가 어떤한 격에도 서지 않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특수한 용법은 부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생긴다. 图42-8은 「雨は降っていない。  
(비는 내리고 있지 않다.)」의 구조로, 이것에 실체화 조작(θ包에 의한 포합)을 가하여, 상대화묘사(「は」에 의한 테두리)를 한 것이 图42-9이다. 图42-9에 있어서도 图42-7과 같이, 포합실체는 무격의 존재가 되어 있다.



hur-i=te-θ=i-na. k-i

图42-8 雨は降っていない



hur-i=te-θ=θ包-無格-wa=i-na. k-i

图42-9 雨は降ってはいない

제로포합실체가 무격이 되는 것은, 이와 같이 동사 템형을 실체화하여, 그것을 상대화묘

사하는 경우에 있어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사 テ형이어도 그 제로포함실체는 통상 대로 격에 있어서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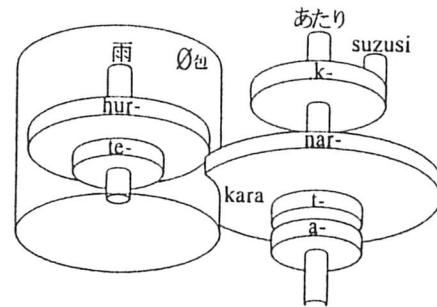
예를 들면,

雨が降ってから涼しくなった。(비가 내리고부터 서늘해졌다.)

의 밑줄 그은 부분은

hur-i=te- Ø= Ø包 -kara

라고 하는 형식을 하고 있고, 그 구조는 図42-10과 같이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제로포함실체는 「から격」에 서서, 통상의 용법으로 되어 있다.



ame-ga hur-i=te-Ø=Ø包-kara suzusi. k-u nar-i=t-Ø=a-Ø  
図42-10 雨が降ってから涼しくなった

玆, 雨が降ってからは涼しくなった。(비가 내리고부터는 서늘하게 됐다.)

의 「からは」와 같이 「は」에 의한 상대화묘사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그 경우에는 図 42-10의 Ø包에 「は」의 테두리가 있는 것이 된다.